

운행속도 110km ... 광주~서울 20분 단축

금호고속, 호남선 KTX 개통 경쟁력 강화 대책

좌석 간격 넓히고 저렴한 가격 내세워 승객잡기 '남도 한바퀴' 순환버스에 계열사 할인혜택 부여

“예전보다 서울 가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네요. 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되면 운행 시간이 더 짧아질 것 같은데요.”

지난달 호남선 KTX 개통 뒤 금호고속이 운행속도 향상과 편의성 확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기에 '남도한바퀴' 등 관광지 순환버스에 계열사 할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승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광주 20분 단축=금호고속은 지난달 26일 전 노선의 버스 운행속도를 기존 100km/h에서 110km/h로 상향시켰다. 이 경우 서울~광주의 소요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20분가량 줄어든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산에서 천안·영동선까지 확대 시행되고, 이용 대상 차량이 기존 9인승에서 11인승으로 올라가면 운행속도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고속은 호남선 KTX 개통 뒤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 광주~서울을 오가는 버스 1대당 1명꼴로 승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서울 노선은 평일 90~95대, 주말 125대가 운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우등버스(28좌석) 3~4대 분의 승객이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행속도 향상은 이용객을 붙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실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고모(31)씨는 “서울에서 밤에 광주를 내려오는 데 20분이나 운행시간이 줄었다”며 “대폭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체감효과가 커 다음에도 고속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가 한가한 평일 밤 시간대엔 서울~광주 2시간대 주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가장 운행시간이 긴 광



주~인천공항 노선 역시 20분가량 감소해 서비스가 한결 나아졌다는 평이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KTX의 앞·뒤 좌석 간격보다 7cm나 긴 좌석간 거리와 각각 KTX 특실 대비 60.2%, 일반실 대비 62.4% 저렴한 버스가격을 내세워 승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계열사 제휴로 할인상품 늘려=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제휴 할인 상품으로 호남선 KTX에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금호고속 '남도한바퀴' 상품의 할

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남도한바퀴 순환 버스를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김포~광주 노선에 한해 주중 최대 40%의 항공권 할인과 30%의 버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도한바퀴는 담양 죽녹원과 보성 녹차밭, 함평 자연생태공원 등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순환버스로, 광주와 순천, 목포, 여수, 진도 등 모두 8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이벤트 기간에 홈페이지(flyasia.com)를 통해 제휴상품 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국내선 무료 항공권과 항공기 모형 등 경품을 준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KTX 개통 시대를 맞아, 고속버스만이 가진 장점을 더욱 살리는 방식으로 고객 편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사고와 고장, 고객 불만이 없도록 하자는 '3-Zero' 운동을 통해, 새로운 고속버스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4.16 (+17.39)
- ▼ 금리 (국고채 3년) 1.86% (-0.08)
- ▲ 코스닥 692.23 (+5.49)
- ▲ 환율 (USD) 1099.70원 (+3.90)

한전인재개발원-한국뉴욕주립대 산학협력 MOU

전력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원장 허경구)과 한국뉴욕주립대학교(총장 김춘호)가 12일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산·학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 주요 내용은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분야 정보 공유와 산·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수행, 해외교육 사업의 공동 개발 및 수행, 교육 인프라의 상호 활용 및 교수요원 인적교류 등이다.

허경구 한전 인재개발원 원장은 “해외교육 사업의 공동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은 물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산·학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한전 인재개발원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대학과의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 및 우수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롯데슈퍼-광주원에농협, 로컬푸드 사업 추진

지야동에 농산물유통센터 준공

롯데슈퍼와 광주원에농협(조합장 방원혁)이 손잡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광주지역 소매망을 통해 판매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롯데슈퍼와 광주원에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북구 지야동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준공하고 본격적인 로컬푸드 사업에 나선다.

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세웠다. 비파고 당도검사기·색택감지 선별기·상품 검사실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산지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산지계약농가 300여 가구도 참여한다.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하고 소비하는 유통구조이다.

유통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롯데슈퍼와 원에농협은 산지에서 30분 이내에 광주지역 롯데슈퍼 전 점포 직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산지농산물을 공급하며 첨단점·봉선점·문흥점 3개점을 시작으로 광주지역 롯데슈퍼 11개 점포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LH, 광주 선운지구 10년 공공임대 1022가구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조명현)가 광주 광산구 선암동 광주선운택지개발지구에 2017년 8월 입주 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 1022가구를 5월 말에 공급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없어 장기적으로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없이 내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인 임차인이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감정이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선운지구는 공동주택 5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인근에 KTX 송정역과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운수IC)가 1km 이내, 광주광역시 3km 이내에 위치해 전국 각지로 이동도 편리하다. 공급평형은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66~74㎡로 구성된다. 문의(1600-1004).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비정규직 465명 내년까지 정규직 전환

노사 상생 합의안 도출

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사,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특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465명을 기아차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기아차는 이날 “사내하청 직접생산 인력 증충해 200명, 내년 265명 등 내년까지 465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심이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장기화 소용되는 데다 개인별로 사안이 다르다는 점 등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 절차와 별개로 사태를 조기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기아차는 하청 근로자들에게는 직업 채용의 기회를 늘려주고 회사는 숙련되고 경험있는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채용 확정자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가 어려운 현실을 공동 인식하고 직접생산 도급 인원의 점진적,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2016년 채용 완료 이후에도 사내 하청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극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원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산악 철탐 진단 열화상 드론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국제 전기전자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이 한국전력이 내놓은 전력설비 열화상 자동분석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은 이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해 기존 장비로는 진단이 불가능했던 산악 등지의 철탐을 진단하는 데 활용한다.

연합뉴스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금역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동강대학 **263-0136** (말바우시점)
두암타운시거리 **264-1232**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부영아파트 **572-9511** (청담지점 (호반아파트 청문 맞은편))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강원총판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 경북총판 - 모집중

* 마스코트 제품 및 몰팅머크 취급권을 위 권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편이현, 천사당해 등 담배스메인 지원금 받으신 모든 점주님)